



3면

“한명숙 회의결과 순식간 유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음 2월 11일) 제27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부동산 투기 ‘모든 간부공무원’ 전수조사

전주시, 5급 이상 153명 등 500여명

공무원·부모·배우자 가족 등까지 조사대상
조사지역도 전주교도소·탄소산단까지 확대

1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전 간부공무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지로 늘렸다. (관련기사 4면) 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 한 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도시사업과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와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회부서

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명이 조사 대상이다. 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을 조사하려다가 간부 공무원 전체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1H 임직원 불법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나이가 공직자 관련자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 지역도 ▲만성지구, 효천지구, 예곡시타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



백미영 전주시이퍼트특별조사단장은 22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그 외 1곳 등 총 9곳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에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났다. /김윤성 기자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다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63-281-2121)로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사태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술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까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100% 용담호 맑은 물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진안군 사회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은 22일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을 다짐하고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용담호 물 문화관 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과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진안군 사회단체 일동이 주관한 주민קה회 회가 함께 열렸다. 물의 날 행사에는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원 및 사회단체 일동,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군의장, 이한기 도의원, 권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실천 결의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의지를 널리 전파하고자 추진됐다. 용담호 수질개선협의회 김경길 회장은 “전북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200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도 전라북도-진안군-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자율적이며 민간주도형식

진안군민들,קה회대회 열고 수질 자율관리 실천 결의 광역상수도 공급률 확대 촉구

의 수질관리를 현재까지 이어오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용담호 자원을 미래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지켜가면서 상수원관리에 따른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찾자”고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물을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용담호 담수 이후 20여년 동안 진안군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전북의 생명수인 용담호 수질이 꾸준히 개선됐다며 “진안군의 희생이 이제는 광역상수원 공급 확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관내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열린 진안군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건의문 낭



독식이 열렸다. 건의문에는 진안군 모든 군민이 용담호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 100% 공급과 용담호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안군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진안군주민자치협의회, 진안군애향운동본부 등 7개 사회단체는 용담호에 대한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진

안군 내 광역상수도 100% 공급과 용담호 상류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인상이 담긴 건의문 낭독과 주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 사회단체는 추후 주민 서명부와 함께 건의문을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태만 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은 “우리 사회단체들이 앞장 서 용담호 물에 대한 정당한 진안군민의 권리를 찾자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민 100%가 용담호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전 참석자들이 심바위 어둔리 하천일대 정화활동을 펼치며 용담호 수질 보전활동 의지를 다지던 대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진안군은 2001년 건설된 용담호로 36.24㎢ 면적이 물에 잠겨 1만2,616명의 실형인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진안군 전체 면적 789㎢ 중 112㎢(1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전체 군민의 49%정도만 용담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전북도, 31일까지 실태 점검... 사각지대 해소 중점
무단이탈자에 ‘무관용 원칙’ 입각 엄중 대응 방침

전북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 중 빈번한 확진사례로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자가격리자 관리 및 실태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명,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에 달한다. 이에, 전북도는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한 격리자 모니터링 및 무단이탈자 대응 등 자가격리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발굴하고,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추진하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며,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순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북도에서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